

의생활을 통해 본 제주인의 삶

의복은 기후와 풍토와 같은 자연환경과 원료의 공급, 사람들의 기술, 도덕적 기준과 미적인 기준, 정치적 관념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의복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서 무언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의생활을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동일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은 시점까지 제주만의 독특한 의생활을 하였다.

그 의생활 속에서 당시의 제주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지혜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 - 붓뒤창옷

사람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무변고 없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의약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은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들이 가르쳐 준 비법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아기가 잉태되면 몸조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여 부정으로 탈날까봐 조심 또 조심을 하였던 것 또한 어머니에게서 전수된다.

아기는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입던 갈중이로 감싸두었다가 3일이 되어야 옷을 입혔는데 이 때 입는 옷이 붓뒤창옷이다. 다른 지방에서 배냇저고리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붓뒤창옷이라고 하며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입었던 옷으로 붓은 태반(胎盤)을 뜻하는 제주어로서 붓뒤창옷을 해석해 보면 ‘아기집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 입는 창옷’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옷은 옷의 기능 중에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이 되면 그 때야 산모와 아기는 쑥물로 목욕을 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고 믿는 여신인 삼신할망(産神)에게 상을 차리고 나서 아기에게 붓뒤창옷을 입히고 젖을 물렸다. 붓뒤창옷은 다른 지방의 배냇저고리와 재료에서도 다르다. 다른 지방에서 보통은 면(綿)을 사용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삼베이다. 조상들이 직조해서 입은 옷감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옷감이 삼베이며 아무리 직물이 다양해도 삼베를 고집했던 이유는 주술적인 의미를 간직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영험들이 손상될까봐 그대로 사용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양육 양식들은 부모를 통해 교육되어지고 일단 받아들여지면 쉽게 바뀌지 않고 부모들이 그들을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다루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삼베의 효능 중에 피부에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 깨끗이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삼베를 써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더 고집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되어진다. 할머니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등 가렵지 말라고 입혔다고 한다. 형태는 저고리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소매는 통폭으로 하여 아기가 온전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고, 뒤가 조금은 터져 있는 것이 많다. 고름은 무명실로 하였는데 이는 명(命)줄로 장수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무사하다고 해야만 만들었지 미리부터 옷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면 숭시(凶事)난다고 믿었다. 그리고 손이 귀하거나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무병장수하고 복덕(福德)있는 할머니의 삼베속옷을 얻어 와서 만들어 입히거나 아기가 잘 자라는 집의 옷을 빌려와서 입혔다. 그리고 이 옷은 복(福)이 깃든 옷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가도 반드시 돌려받았다.

실용적이면서 편리한 - 소중이

여자들의 하의 중 제일 속에 입었던 오늘날 팬티에 해당하는 옷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두루 갖춘 속옷이다. 실오라기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평면제단을 하였지만 밑바대는 바이어스로 제단 되어 몸의 움직임이 자유스럽고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통풍도 잘 된다. 1960년대까지도 부녀자들은 속옷으로 입었지만 지금은 호상옷(수의)에 남아 있는 뿐이다.

하지만 소중이는 물자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실용적이면서 창의적인 옷이다.

궁리하여 지혜를 모은 전문 직업복 - 물옷

물옷은 물질할 때 입는 노동복이면서 전문 직업복이다. 제주도 해녀들은 목

숨을 건 물질로 남편을 살렸고 험난한 삶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근대에 와서는 가정경제의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해외로 물질을 나가는 출가해녀로 인해 제주도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물옷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발생연대는 알 수 없지만 탐라 순력도의 물질하는 그림에 물소중이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잠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오래전부터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하였으며 이것이 197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왔다고 보아진다.

물옷은 편리함과 견고성,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어 어려운 바다에서의 노동환경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공리를 하여 지혜를 모은 옷이라고 할 수 있다.

물옷으로는 물소중이가 대표적인데 물소중이를 소중기라고도 하며 1930년 초반에는 흰색이나 검정색의 소중기만을 입기도 하고 면으로 만든 내의와 같은 물적삼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베로 감싸는 경우도 있었다.

물소중기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었고 앞면은 가슴까지 덮고 어깨에 끈으로 연결한 형태와 어깨끈이 양쪽 어깨에 모두 있게 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입어보면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고안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물옷은 사용하면서 작업하는데 편하게 그리고 견고함과 실용성을 염두에 두어 만들어 입었다.

물적삼과 물수건은 1950년대를 전후해서 처녀들이 멋을 내기위해 흰 물적삼을 곱게 만들어 입고, 물수건을 쓰고 버선도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신고 물질을 했다고 한다. 물적삼을 입으면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직물이 풍부해지면서 젊은 층에서부터 만들어 입기 시작하여 1950년대 이후로는 거의가 입게 되었다. 물적삼은 저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밈을 매듭단추로 하거나 일반 단추를 달았으며 나중에 블라우스를 본 따 만든 물 적삼도 있었다.

물옷은 각 가정에서 스스로 만들어 입었는데 제단을 하고나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만든 옷으로 즈냥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옷이다.

상체는 몸에 꼭 맞게 하고 하체는 밑바대가 바이어스로 되어 신축성이 있도록 하고 겹으로 되어 있다. 이음선이나 활동력이 많은 부분에는 바대를 덧대서 견고하게 만들었고 트임은 옆으로 되어 있어서 노천에서 입고 벗을 때에도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한 쪽 다리만 열고 갈아입을 옷을 입어 가면서 벗으면 되었다. 특히 물소중이는 임신하여 작아서 못 입거나 혹은 아이를

낳고나서 커서 못 입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 매듭단추를 여미는 고리 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엄두에 두었다.

이와 같이 물소중이는 물자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작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로우며 창의적인 전문 직업복이다.

예의를 차린 - 머리수건과 ㄴ는대 구덕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는 햇빛을 막기 위해서, 혹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 된다. 제주도 여성들은 남자가 외출 할 때 갓을 써야 예를 갖춘 모습처럼 여성들도 맨 머리로 나가는 것은 예가 아니라 여겨 수건을 쓰고 다녔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몽골과 공통되는 현상이고 이북지역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만 쓰는 방법은 다르다.

ㄴ는대구덕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짠 구덕으로 곱게 사용되는 구덕으로 제주여성들이 외출 시에 들고 다니는 핸드백의 역할로 옆구리에 끼고 다니거나 먼 길을 갈 때는 등에 지고 다녔다.

제주도 가옥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수리대 받이 있다. 보통 장독대 뒤편에 있는데 이 수리대를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구덕과 차룻, 꼬지,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구덕을 사용하다 헐어서 쓸 수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선하여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풀바른 구덕이다. 구덕이 구멍이 나거나 헐어서 쓸 수 없을 때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종이나 형곶쫓가리를 해초풀로 바른 것을 브름구덕(풀바른구덕)이라 한다.

대나무로 만든 구덕은 집밖에서 사용했다면 브름구덕은 집안으로 들여져 사용하는데 주로 낱알이 작은 씨앗이나 가루를 담은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제주도 속담 중에 “검질꼬래기 하나라도 놔두면 다 쓸데 있져”

종이쪽지하나 흰 형곶쫓가리 하나를 버리지 않았다가 구덕에 발라서 사용하거나 향아리가 금이가 사용할 수 없으면 다시 종이를 발라 사용하는 등 재활용의 선두주자였다.

제주도 환경에 최적인 -갈옷

제주도는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땅이다. 그래서 노동복을 벗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여름철 날씨는 후덥지근하여 모든 물건이 상하기 쉬운 날씨이고,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 빨래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

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구비된 옷이 갈옷이다.

갈옷은 뚝은 토종꽃감의 즙으로 물을 들어서 농어민들이 노동복 또는 일상복으로 입었던 옷이며 갈옷이라는 명칭은 감물을 들인 옷 또는 갈색을 띠는 옷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는 갈적삼에 갈중이, 여자는 갈적삼에 갈굴중이를 입었다.

갈옷은 입으면 통기성이 좋고 풀을 먹인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촉감도 좋으며 시원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땀이 나거나 물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또 빨리 건조되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준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잘 찢겨지지 않는데 이는 감물을 들이면 강도가 강해져 질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입다가 헐어서 후줄근해지면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리까끄라기 같은 오물도 쉽게 달라붙지 않고 만약 붙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지기 때문 노동복으로 최고의 조건이 구비된 셈이다. 또한 갈옷은 빗갈이 제주 흙 색깔과 비슷하여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감 염색으로 옷감에 코팅 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 타고 더러워진 것도 물에 주물럭거리려 활활 행귀 탁 털어 말리면 그만이니 참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옷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땀에 젖은 옷을 그냥 두어도 쉽게 썩거나 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는 화학염료로 염색한 옷에 비해 향균성이 무척 뛰어나서 땀이 묻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외선 차단효과가 완벽에 가까운 옷이다.

자연을 이용하여 환경을 극복한 -우장

제주도에서는 밭농사와 어업, 사냥 혹은 목축 등을 하면서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였다. 즉 제주도는 물자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우장은 도롱이, 좁세기 등으로 불리는 제주도의 비옷이다. 우장을 언제부터 입게 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의복을 입는 동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천에서부터 생겨난다. 하나는 이전에 학습할 기회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발현하는 ‘본능’인 몸을 위험인자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에서, 둘째는 개인적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과정인 ‘시행착오’를 통하여 반응이 발전되어 의복을 입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학습’ 즉 모방이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하

여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의생활을 살펴보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기록과 풀을 엮어 몸에 둘렀다는 기록 등이 있다. 이는 직물이 직조되기 전 상태의 의생활이며 제주도 사람들의 본능적인 의생활로 보아진다. 우장 또한 그 재료가 풀인 띠를 이용하여 만들어 졌는데 초기 제주도의 의생활에 나타난 풀을 엮어 만든 것과의 관계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한 민족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히게 되며 더 나아가 윗세대의 경험적인 지식은 다음세대들에게 전하게 되어 축적되고 다시 다음 세대는 새로운 지식을 첨가하여 팽창되어져 간다는 문화의 속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물이 직조되고 다양하였던 시대에도 풀인 띠를 이용하여 우장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속되어온 것이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 할 것이 없기에 존속된 것이라 여겨진다.

지천에 널려있는 띠로 만든 우장은 추울 때는 방한복이고 비가 오면 비옷, 들에서 노숙을 해야 할 때는 이불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백중 때 마소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는 돛자리 역할도 하였다.

다른 지방은 논농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서 짚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제주도는 산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풀을 이용하는 지혜가 일찍이 발달하였으며 우장도 그 중 하나이다.

모양은 망토와 비슷한 모양이며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재료는 억새 속잎인 미와 띠이다. 억새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흔하게 자라며, 억새 속잎인 미는 꽃을 싸고 있던 속잎을 말한다. 띠는 억새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잘 자라는 흔한 다년생 풀이며, 주로 제주도의 초가지붕을 덮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띠는 뱃짚에 비해 가볍고 방습성이 뛰어나서 비가 많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재료인 셈이다.

우장의 직조법을 보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독특하게 짜여 졌고, 목과 허리에는 여밈 줄이 있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테우리(목동)들이 장마철에 한라산 중턱에 방목중인 마소를 보러 다닐 때는 도롱이를 입고, 정동벌립이나 털벌립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어서 중요한 필수품이었다.

떠난 자와 남겨진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 호상옷

호상옷은 수의(壽衣)를 말하며 저승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 저승옷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호상옷이라고 한다. 호상옷의 특징은 다른 지방에서는 삼베로 장만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명주를 제일로 여기고 있으며 많은 의미를 간직한 옷이기 때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호상옷은 남자는 혼례 때 사모관대를 하거나 양복을 입었더라도 호상옷으로는 전통적인 예복을 입으며 여자는 전통혼례 때 입었던 혼례복을 입는다.

만약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날을 보아서 좋은 날을 택하여 만들거나 환갑이나 윤달에 미리 만드는데 복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만든다. 바느질을 할 때에도 매듭을 맺거나 뒷바느질은 절대로 삼갔다. 매듭을 맺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맺힌 한을 풀고 가라는 염원이며, 뒷 바느질을 삼갔던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저승으로 잘 가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한다. 또 치수나 폭 수도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하였는데 이는 짝수로 하면 짝을 찾아서 간다고 해서 홀수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저고리 바지가 겹으로 된 옷은 명주숨을 넣거나 숨이 없으면 창호지라도 넣었다. 이는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붙어 있으면 자손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 옷을 만들어 두면 시름시름 아픈 환자도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미리 장만하는 경우가 많다.

호상옷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또 저 세상에서는 이승에서 누리지 못한 호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옷이다. 또 한 가지는 호상옷은 미리 장만하면서 한 가지는 꼭 빠뜨려서 죽은 다음에 자손이 준비하도록 했다. 이는 귀를 다 갖추게 되면 때가 아닌데 저승사자가 데려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남겨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쯤이라도 먹어서 구멍이 생기면 안 되었다. 구멍 난 호상옷을 입고 저승가면 자손들 중에 도둑이 나온다고 하여 경계를 했으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이 호상옷은 떠나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으로 잘 가라는 염원과,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탈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동시에 담겨진 옷이다.

이상과 같이 의생활을 통해 제주인의 삶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제주인은 틀에 얽매인 고정된 사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대처하며 당당히 맞서 헤쳐 나갔다.
2.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 자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뛰어나며 또한 아무리 흔한 풀이라도 쓸 만큼만 채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도 살필 수 있다. ‘과하면 화가 된다.’ 고 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3. 한 올의 실오라기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근냥정신을 바탕에 두고 궁리하여 실용성과 편리함 그리고 다양성을 염두에 두며 내일을 대비하였다.
4. 물리적인 옷이지만 입게 됨으로서 그 옷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건강하거나 복이 있는 사람의 옷을 얻어 입히려고 하였고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각하여 저승으로 같이 보내고 있다.
5.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근냥하며 필요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낡아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뛰어나다.
6. 조상숭배 의식이 강하다. 죽은 자를 위해 만든 호상옷은 지금도 변함없이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염원과 남은 자들의 안녕을 위한 염원이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14인문학이야기-세번째"제주옷에는 제주인의 창조적 사고와 조량이 배어 있다. " 8일(수)19시.제주리더십센터(정부종합청사 옆)-제주대안연구공동체
—

http://www.jejuin.org/skyboard/board_read.asp?id=265&ref=265&page=1&code=sky_notice&search=&SearchString=